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중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코로나-19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매일 새롭게 발표되는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4월 16일 현재 약202만 명이 감염되었고 13만3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. 폭발적인 증가로 본 안건의 심사 일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몇 명이 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.

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국가가 외부 차단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 발생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.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9월 조사결과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지키는 시민은 2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

수도요금이 없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.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조사결과와 같은 2%의 손 씻기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개인위생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코로나-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향후 복구까지를 예상한다면 수백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.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감염병을 조기에 수습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적인 피해와 인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,

서울시는 다른 예방책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손 씻기 수도요금 감면·지원을 알리고 개인위생이 철저하게 실천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합니다.

근래의 세계적인 감염병은 2003년 사스(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), 2009년 신종플루(신종인플루엔자), 2015년 메르스(중등호흡기증후군(MERS)),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로 대략 5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

금번 코로나-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생

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 이제 위기경보가 발령될 정도의 심각한 감염병은 개인, 지자체, 국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만 극복할 수 있는 우리주변의 상존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 그리고 환경수자원 위원 여러분!

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